“인간의 삶(존재)를 ‘훌륭한 예술작품’처럼 만들 수 있는 (가능)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.

양심 죽음 사랑 가운데 세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” 양, 간격 포함 3,000자 내외.

서론

훌륭한 예술작품이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방면에서 가치를 지닌 작품을 의미한다. 그래서 인간의 ‘훌륭한 예술작품’ 같은 삶은 자신만의 훌륭한 가치관을 구축하며 그것을 행하고 타인에게서 인정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훌륭한 가치관이란 무엇일까?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도덕적인 것,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.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개인에게 잘 정립되어져 있고 잘 실천하나면 이를 보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. 하지만 ‘훌륭한 예술작품’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단순히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한 예술작품처럼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인정받을 가치관이 존재해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‘훌륭한 예술작품’처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훌륭한 가치관에 더해서 양심, 죽음, 사랑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고뇌와 신념이 필요하다. 이러한 것들은 필멸자인 자신의 존재를 개인이 확실히 인지하고 삶을 살아갈 방침과 고유한 신념을 만들어 내면서 한 명의 인간이 명화와 같이 신비로움과 멋을 만들어낸다. 하지만 단순히 필연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술작품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필연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훌륭한 예술작품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? 이를 위해 양심, 죽음, 사랑 등 필연적이면서도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논해보고자 한다.

본론

우선 죽음은 필연적인 것들 중 가장 확실하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다. ‘죽음은 가장 확실하지만, 죽는 때는 가장 불확실하다.’라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필멸자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죽는 순간은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.

(죽음을 유기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의미와 나의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 예를들어 가정환경, 친구들이 내가 죽으면 어떨지 등)

Ps1.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만이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라고 배운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.